2003 주택건설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상

전상표 (주)현진에버빌 회장

"기업의 이윤은 고객의 신뢰와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

"좋은 택지를 개발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를 지은 것뿐인데 이렇게 큰 상까지 받게 되어 무척이나 기쁩니다. 특히, 금탑산업훈장은 국민들이 주시는 상이라 건설 외길을 걸어온 저에게 무척 뜻깊은 상이 되었습니다. 더 좋은 아파트를 지으라는 격려로 알고 더욱 노력하고 발전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파트로서 손색이 없는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업체로 우뚝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전국 각지에서 활발한 주택 공급을 펼치며 주택 건설 부문에서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대표적인 건설업체로 자리매김한 (주)현진에버빌의 전상표 회장이 구랍 22일 건설업계의 대표 기관인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및 대한주택보증(주) 등 3개 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건설교통부가 후원하는 '2003 주택건설의 날' 행사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금탑산업훈장은 주택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대통령 훈장으로 제1등급의 산업훈장이다.

전상표 회장은 지난 1984년 지금까지 정부의 주택 건설 정책에 적극 호응하며 '앞선 기술로 다음 세상까지 계속될 주거 공간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현진에버빌' 아파트를 공급해 오면서 서민 주거 안정과 선진 주거 문화 창조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또한, '2003년 무차입 투명 경영'을 선언하고 올 한 해 동안에만 용인, 춘천, 원주, 동두천 등 전국 각지에서 6,000여 세대의 아파트 분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면서 전체적인 부동산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현진에버빌만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올해 시행 예정인 '선시공 후분양제'를 미리 준비하면서 튼튼한 재무 구조를 가진 건설업체만이 행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소비자가 제일 먼저 선택하고, 최고로 만족할 수 있는 아파트 만을 공급하겠다는 강한 신념 아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파트'로서 확실히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29 주택 안정 대책 이후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어 각 건설업체들이 올 2004년 분양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주상복합에 대해서도 전매를 제한하고 있어 여러모로 힘들 것입니다."

전 회장은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들에 의해 부동산 거품이 사라지면서 투기 세력들이 근절되면 실수요자들은 오히려 좋은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는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최근의 주택 시장에 대해 진단했다. 따라서, 주택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상품과 모델을 개발하면서 보다 나은 주거 공간을 공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통해 기업의 이윤이 창출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 주거 문화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기업의 이익은 고객과 소비자의 신뢰와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경영 이념 아래 전 회장은 고객들의 신뢰와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그 동안 수해 복구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독거 노인 주택 보수 지원 등의 복지 사업을 수행해 왔다.

전 회장은 좀더 체계적인 복지 활동을 펼치기 위해 지난 해 10월에는 사재 70억원을 들여 '백우현진복지재단'을 설립, 사회 복지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전 회장은 이 재단의 기금을 300억원 규모까지 늘려서 제대로 된 사회 복지 사업을 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정숙진 · 기자 · sjeong@cak.or.kr